

죽음 부른 '데이트 폭력'

이별 통보 여친 나체사진 강제 촬영하고 유포 협박... 견디다 못한 여친 목숨 끊어

광주남부경찰, 20대 구속 이단 데이트폭력 대책 시급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성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옛 연인의 협박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남성 입장에서는 마음이 떠나간 연인을 잡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모르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데이트 폭력 이상의 극심한 고통을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정부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광주지역 데이트 폭력 사범은 매년 수백건 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남부경찰은 5일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해 인터넷 등에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A씨(2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3일 새벽 2시에 광주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21)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을 찍은 혐의이다. 또 해당 사진을 인터넷이나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협박에 괴로워하던 B씨는 같은 달 28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월 1일 '말이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았다'는 B씨 아버지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정보 분석(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씨가 삭제

한 B씨 사진을 복원해 혐의를 입증했다.

A씨는 경찰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이지 강제적으로 찍지 않았고 협박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반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북부경찰은 5일 옛 여자친구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부순 C(23)씨를 입건했다. C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D(여·22)씨의 가슴을 밀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순 혐의이다. C씨는 D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다른 남자 연락처를 확인한다며 휴대폰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주서부경찰은 헤어친 여자친구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E(26)씨를 협박 혐의로 이날 입건했다. E씨는 지난 2일 F(여·22)씨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죽여버리겠다", "부

모에게 과거를 알리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데이트폭력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등 데이트 폭력은 2016년 254건, 2017년 497건, 2018년 575건, 올해(지난 4월 기준) 1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률은 2016년 9명, 2017년 7명, 2018년 12명, 올해 1명 등 2%에 지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여성은 데이트폭력을 당하더라도 보복이 두려거나 부끄러워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폭력을 당했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업가 납치·살해' 조폭 부두목 어디에...

13년 전에도 지능적 도피 행각 전력... 수사 장기화 우려

지난달 발생한 50대 사업가 납치·살해 사건을 주도한 조폭 부두목이 보름 넘게 잠적하면서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일 경기 양주경찰과 광주 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폭력조직 국제PJ 파 부두목 조모(60)씨가 A(56·부동산업)씨 납치·살해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조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조씨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행각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이번 사건과 '판박이'인 2006년 광주 건설사주 납치 사건 때도 5개월간 휴대전화 수십대를 바꿔가며 지능적인 도피행각을 벌인 점에 주목하고, 조씨의 흔적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경찰의 또 다른 고민은 조씨를 검거하더라도 조씨의 범행 주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이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조씨의 하수인 김모(61)씨와 홍모(65)씨, 조씨의 친동생(58) 등 3명이며, 김씨와 홍씨는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1일 밤 10시 30분께 경기도 양주시청 부근 한 주차장에 주차된 BMW 승용차에서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차량 뒷좌석에서 웅크린 자세로 숨겨 있었던 A씨의 온몸에는 구타당한 흔적이 보였으며, 시트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공사 수주·인사 청탁 미끼 돈 챙긴 브로커들 구속기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공공사 수주와 인사청탁을 도와주겠다며 수천만원씩 받아 챙긴 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경찰청 특수부는 5일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 A씨와 건설업자 B씨, 조경업자 C씨를 각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의 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수억

원 규모의 공사를 알선해 준 대가로 지역 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4000만~700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주겠다며 해당 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이들은 전·현직 언론인과 지자체 별정직 공무원 출신 이력을 내세워 이른바 '브로커' (중재자)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목포 부동산 의혹 등

손혜원 의원 검찰 조사

혐의 전면 부인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일 손혜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손 의원은 검찰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손 의원은 목포 거리를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하도록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손 의원은 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손 의원 부친 손운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으나 작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7번째 신청을 앞두고 손 의원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연합뉴스



취약계층에 선풍기 보냅니다

5일 광주시 북구청 복지누리동 주차장에서 북구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폭염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선풍기를 차량에 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곡성 80대 할머니 야생진드기 SFTS 감염

전남지역에서 올해 최초로 야생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곡성에 거주하는 A(여·83)씨가 도내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SFTS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산소에 다녀온 후 발열과 피로감 근육통을 호소해 지난달 31일 인근 병원을 찾았고 지난 3일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SFTS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 전남에서는 올해 첫 환자 발생이며,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12명이 감염돼 이중 2명이 숨졌다.

SFTS는 주로 4~11월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을 비롯해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을 보인다. 예방백신이 없고 심하면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로

사망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2016년 165명, 2017년 272명, 2018년 25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전남에서는 2016년 9명, 2017년 18명, 2018년 16명이 발생했다.

SFTS는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농촌 지역 고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도), 소화가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경찰, 배임 혐의 박병중 전 고홍군수 소환 조사

경찰이 배임 혐의를 받는 박병중 전 고홍군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고홍경찰은 "4일 오후 박 전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박 전 군수가 재임 당시 콘도개발을 하면서 토지 보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건설사에 싼 값으로 부지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박 전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절제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월 3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군수와 공무원 6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에는 고홍군청 기획실과 재무과 등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고홍 주민 1000명은 지난 2월 박 전 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다음 주에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술마시다 친구 폭행하고 출동 경찰에 음주운전 폭로까지

○...만취한 40대가 함께 술을 마신 친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에게 친구의 음주사실까지 알렸다가 나란히 경찰서행.

○...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입건된 A(43)씨는 이날 새벽 1시 35분께 광주시 서구 유덕동 상가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 B(43)씨와 딸

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3차례 때렸는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친구 B씨가 좀 전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폭로했다는 것.

○...A씨는 "친구(B씨)가 화나게 해 몇대 때렸는데, 혼자 경찰서에 갈 생각을 하니 억울한 마음이 들어 (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갈라강판 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 ▶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대한의사회의 의료광고심의필 제 190402-중-91648호]

진정한 난임의 극복은 임신의 소식이 아니라 건강한 아기의 출산입니다.

난임치료 | 시험관아기시술 | 냉성난임 | 난자냉동 | 복강경수술



정효영 원장

의료진 | 최범재 김명미 정효영 오인경 최민영

062)368-1700 광천동 LG유플러스 옆

